금강경 핵심은 '인식 뛰어넘기'

출가 이후 송광사, 칠불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던 한 수좌가 돌연 팔리 삼장을 우리말로 역해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인도로 떠난다. 각묵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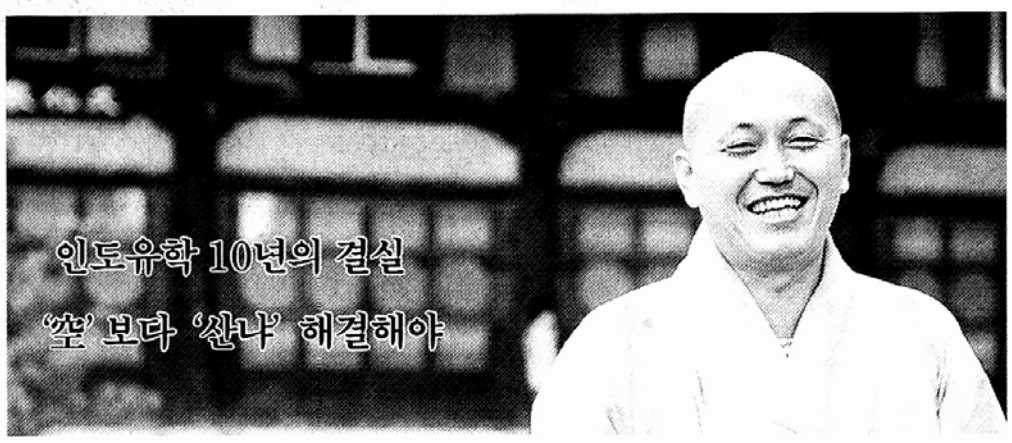
"87년 여름 쌍계사 칠불암 운상선원에서 반 철 지나면서 외국에 나가야겠다는 망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망상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군요. 해제하고 도반인 함현 스님을 만났는데 '팔리경전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느냐. 선방에서 정진도 했으니 자네가 그 일을 하게'라는 말이 계기가 되었지요."

각묵 스님 '금강경 역해'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불교가 태동할 무렵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며, 수행의 주춧돌이라고 판단한 스님은 인도로 향했다. 그리고 인도유학 10년의 결실이 바로 〈금강경 역해〉(불광)다.

각묵 스님이 이 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相)의 원어가 니밋따(nimitta · 모양)가 아니라 산냐(sanna · 인식)임을 알면서부터다. 산냐가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스님의 궁금증을 더했다.

"〈금강경〉의 말씀을 공(空)이라는 거창한 명제로 설명하는 대승불교의 관점은 너무나 이데올로기적 해석입니다. 〈금강경〉은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산냐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경입니다. 공관의 지혜를 설하기에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산냐를 뛰어넘는 참 지혜를 설하기에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스님은, 불교가 불교이고 부처님이 부처님인 것은 바로 이 '산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지금까지 수십 종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구마라즙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다 보니 〈금강경〉의 말씀이 구마라즙의 안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과 산스크리트 술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토대로 출간된 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스크리트 원문, 구마라즙 원문, 현장역본을 대역하고 상세한 주해로 편집한 〈금강경 역해〉의 가치가 예사로울 수 없다.

전체 경의 분절은 예로부터 통용되어 온, 양나라 소명 태자가 나누었다고 전해오는 32분절의 형태로 유지하면서 역경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구마라집 역본과 중국역경사의 자존심이라 할 현장역본을 산스크리트 원전과 비교해가면서 상세하게 대역해 놓아 원전이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원전을 무시하고 한문본으로만 읽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금강경〉을 통해서 인생과 삼라만상의 실상을 밝히면서 '산냐를 극복하라'고 설하신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예리한 직관으로 형이상학적 문제를 포착, 독자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 그를 흔히 '20세기 창조자' '환상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라 부른다.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상징의 하나가 된 그의 대표작들에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그가 작품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내 안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진짜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다. 이러한 그의 의문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윤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다.

수많은 불교서적을 탐독하며 오랜 동안 불교를 공부한 그는 〈불교 강의〉를 직접 썼을 뿐 아니라, 말년에 자신이 평생

세계는 거대한 환상 작가의 깨달음 번뜩 부처 정신세계 천착

집착한 불교의 일곱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불교는 나에게 있어 구원의 길이었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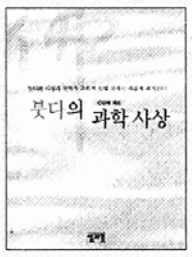
지난 98년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는 보르헤스가 불교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우파니샤드 철학을 공부했다. 그후 밖으로 드러난 형상의 세계는 거대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겉만 묘사하는 사실주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적 사실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전설상의 부처님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르헤스는 부처님 개인 생애의 기록보다는 그의 정신세계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값 5천5백원.

김중근 기자

깨달음은 생생한 자연법칙

'붓다의 과학사상' 임원택 지음



"여러 사상과 종교가 갖는 핵심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과 탐구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리고 미혹하게 단정된 어떤 절대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원리인 '자연법칙'이라는 주장을 담은 〈붓다의 과학사상〉(삶과 꿈)이 나왔다.

지은이 임원택 씨는 자연과 우주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존재와 인간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의 길'과 '미혹의 길'이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과학이 탐구하는 자연법칙이란 게 지은이의 논지다. 사실의 길은 자연의 창조 원리에 따르는 창조(생성, 생명)의 길이며, 미혹의 길은 자연의 파괴 원리에 따르는 파괴(소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초자연적이라는 환상적 깨달음이 아니라 과학에서처럼 과학적 사고 과정의 이성적 분별심과 과학적 탐구심에서 자연과 인간을 관찰한 데서 나온 자연법칙임을 고대 인도 사회의 사상과 종교, 부처님의 생애, 초기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20세기 가장 영적인 책 한권

'라마 크리슈나' 정창영 옮김

"그의 일생은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 그 자체였다." 마하트마 간디는 근대 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는 라마크리슈나(1836~1886)를 이렇게 평했다.

신간 〈라마크리슈나〉(정창영 옮김, 한문화)는 라마크리슈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어록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신앙과 교리의 장벽을 넘어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그가 자주 강조했던 가르침은 사상과 종교의 조화다. "모든 교리는 수많은 길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길도 결코 신 그 자체가 아니다. 본질은 하나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게 하라." 라마크리슈나는 종교 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인'과 '황금'에 대한 버림의 정신과 신을 향한 순수하고 진지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했다. 이로써 집착으로 고통 받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의식의 진화를 위해 힘썼다. 라마크리슈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상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는다. 사람마다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근대 인도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인간의 도리로 본 원효

'원효사상' 강정중 지음

원효라는 이름을 적을 때 학자들은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자주 쓴다.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원효사상〉(불교춘추사)을 내놓은 강정중 씨는 '도리에 따른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원효 스님이 수많은 주석서를 남겨놓았지만 말년에 실천행으로 중생구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원효 스님 자신 구제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는 우리는 원효라는 한 인간의 진실한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대승기신론 원효소'와 '금강삼매경론'을 우리말과 일어로 번역한 후에 집필한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원효사상의 근본이념을 논한 '원효의 삶에의 보상에 관한 서설' 등이 수록돼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삼묵스님에 관한 27가지 이야기

'돈에도 암놈이 있고…'

산문에 들어와 드러나지 않게 수행과 중생교화를 하다 입적한 한 스님의 법문과 선문답 그리고 일대기를 담은 〈돈에도 암놈이 있고 숫놈이 있다〉(예지인)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삼묵(1913~1999) 스님. 스님은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남기로 홀로 월남하여 출가해 통도사, 김용사, 선암사, 범어사 등 제방선방에서 정진하고 만년에는 부산과 경북일대에서 남모르게 중생교화에 남다른 원력을 펼쳤다고 한다.

이 책은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불자들이 혼자서 알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하는 바람에서 하나하나 모아 엮은 글들이다.

부산 거사림회 법회의 법문 '불교와 인생' '도성(부산 태종사 조실) 스님이 본 삼묵 스님' 등 27편이 실려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보면 사라진다	김 열 권	정신세계사
4	신비의 티베트 명상법	주 민 황	숨
5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6	거울	원 성	이 레
7	붓다는 없다	베 쥘 러	이론과 실천
8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함미디어
9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10	붓다의 대중견성 운동	김 재 영	도피안사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禪文化

10월 2001년 15호 선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교양지

한·중 문화의 교차로 ①
절강성에서 구법한 한국승과 그 유적 포지성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 ① · 공공산 보화사
한국불교의 조종(祖宗), 보화사 월암

발굴 · 공죽사에서 거조암까지
신라무상, 중국 5백나한의 성인에 올랐다 최석환

8세기 초기 중국선종을 주도, 김화상으로 알려진 무상선사가 본지에 의해 중국의 5백나한으로 조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천의 공죽사와 나한사를 비롯, 중국전역에 살아있는 나한의 화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무상의 자취를 발굴 했다.

선과 차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 ⑫ · 공공산 보화사
말없는 가운데 선차 꽃핀 땅, 공공산 보화사 최석환

차가 있는 삶 · 기타리스트 이병우
현(絃)의 울림 속에 차(茶)의 향기가 있다 박지정

다시 듣는 禪과 茶
한국차의 진면목[茶禪一味] 응송 박영희

기획특집 한국선불교의 오늘
동아시아 선(禪)의 중심은 한국이다 석천
선수행의 현장을 가다 방인철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불교의 바람 송평인
선어록강좌 확산이 가져올 한국선불교의 이해 김혜정

선문화 테마기획 - 선의 향기를 찾아서

하북성 조현시의 백림선사는 꺽다거불 천하사람들에게 퍼트린 조주종심선사가 주석한 곳으로, 이곳에 한·중 우호기념 조주선사차비석을 건립함은 끊어져버린 한·중 산맥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불교춘추사는 조주선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중 공동으로 선차비석 제막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 2001년 10월 18일~10월 23일까지 ▶ 신청마감: 10월 10일까지
▶ 조주선사 차시비건립 행사일정
10시: 비석건립 제막식 11시: 한·중 선차 다도표현 12~2시: 만찬 2~5시: 학술대회 5~6시: 자유토론
▶ 비고: 신라인 혜월선사가 조성한 석경 운거사를 참배합니다.
▶ 조주선사의 선사상 재조명 ▶ 참가비: 90만원

정기구독안내
1년(12회) 42,000원
정기구독은 은행온라인이나 지로번호로 구독료를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구독문의: 733-8076
E-mail:sildara@hanmail.net

월간 선문화사 · 불교춘추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403호 TEL:(02)733-8076, 8078 FAX:(02)723-7461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사주명리) (오행술) (한계) (극복)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改訂增補版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剿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온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상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인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형이상학인(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될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가 수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용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침범 · 신소탈 · 빌미부적 · 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신시(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음양오행가·신명제자·의사 등 활인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삼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참석하시어 활인전역의 달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목자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間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첨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